

제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고 승 익 제주관광학회 회장

김 창 식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I. 서론

제주도는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이전 굳어지지 않은 점토와 모래층이 있던 얇은 바다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약 180만년 전 바다 속 지하로부터 약한 지층을 뚫고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 수성화산활동이 발생하여 수많은 응회환과 응회구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후 오랜 세월이 걸쳐서 화산체들이 파도에 깎이고 해양 퇴적물과 섞이기를 반복하면서 서귀포층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서귀포층 퇴적 이후 원시 상태의 제주도는 해수면 위로 점차 성장하였고, 이후 55만년 이후부터는 용암이 분출하면서 넓은 용암대지들이 만들어지고, 용암이 겹겹이 쌓이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과 해수면이 거의 비슷해진 약 18,000년 전 최종 빙하기 이후부터는 제주도의 해안선을 따라서 수성화산활동이 발생하여 성산일출봉 응회구와 송악산 응회환과 같은 수성화산체들이 생겨나고, 문헌에 기록된 약 1,000년 전의 화산활동을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제주도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도, 2012: 8)

이러한 생성배경을 가진 화산섬 제주도는 그 지형과 자연자원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널리 인정받게 됨으로써 유네스코로부터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어서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쾌거를 계속하여 맞게 됨으로써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도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관광객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농어촌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오늘에

와서는 관광산업이 감귤산업과 함께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는 제주 제1의 생명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제주도의 관광객은 그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지만, 제주도가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그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유네스코의 3관왕이라는 타이틀은 오늘날 제주도 경제를 살찌우는 제주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을 모두 아우르는 세계유산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주의 관광자원과 관광산업, 관광자원으로서의 제주도의 세계유산의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생태관광의 특성 및 제주 세계유산의 현황

1. 생태관광의 특성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1965년에 헬저가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을 고찰하여'라는 논문을 쓰면서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생태관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관광이 책임져야 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① 환경에 대한 최소의 영향, ② 관광대상 문화에 대한 최소의 영향 및 최대의 만족, ③ 관광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④ 참가 관광객에 대한 최대만족 등이다.

그 후 생태관광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의 정립과 실천 강령을 마련한 것은 국제관광기구인 ASTA로 볼 수 있다. 1960년 6월 ASTA 환경위원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관광환경회의에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생태관광의 목적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여행', 즉 자연환경을 파괴함이 없이 자연과 문화를 이용하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한국관광공사, 1992: 58)

이러한 생태관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자이며, 고차원적 생태학적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야생지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 산악지역 등에서 관광매력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즉, 생태관광객들은 물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만의 특수한 흥미들을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극탐험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생태관광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펭귄이나 빙하, 눈 등에 관한 연구수행을 돕기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생태관광객들은 야외활동을 즐기고 연령은 30대 이상이며, 해외여행 경험이 비교적 많으며 전형적으로 개인여행을 즐기는데 성비에 있어서는 남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태관광객의 경우 생태관광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높고 건전한 사고방식의 관광을 즐기며 관광객 스스로가 자원하여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시설과 여행코스를 이용하며, 체재일수가 장기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태관광의 동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 생태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들보다 육체적인 활동, 동호인과 만나기, 한정된 이용 가능한 시간에 많은 것을 보는 것에 흥미를 보이고, 야생지역, 호수나 계곡, 시골지역, 공원, 산악이나 해변 등이 포함되는 목적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큰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접하는 것을 싫어하며, 유사목적을 갖고서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것을 즐기고, 전형적인 일반 관광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안전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일반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발견할 기회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한다고 한다.(고승익 외, 2008: 169)

이러한 생태관광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연자원의 보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정신이 보전개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생태관광지의 관리는 관광객의 이용에 따르는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며,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광의 공존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① 특정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② 환경의 보호 및 홍보, ③ 입장객 수의 조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종구, 1994: 15-16)

2. 제주 세계유산의 현황

제주도의 세계유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으로서 이들 3개 유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주도, 2011: 26-38)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연안지역을 일컫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기준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존재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 지역 공동체 및 민간 참여의 가능 등이다.

2011년 현재 109개국 564곳이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악산(1982년), 제주도(2002년), 신안 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의 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천과 효돈천, 문섬, 섯섬, 범섬 등 3개의 제주도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3개의 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핵심지역에는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 및 난대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여 많은 멸종 위기종과 고유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국유림으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전이지역은 다양한 농업, 어업, 임업이 가능하고 주거지로도 이용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활동하는 구역이 되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 명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 지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영천, 효돈천, 범섬, 문섬, 섯섬 일대
- 면적: 83,094ha(핵심지역: 15,158, 완충지역: 14,601, 전이지역: 53,335)
- 지정일: 2002. 12. 16

(1)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은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 난대성 상록활엽수림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또한 많은 멸종 위기종과 제주 고유종이 서식함으로써 생물 종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 되고 있다.

(2)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영천과 효돈천 천연보호구역은 한라산 남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한라산의 남사면을 대표하는 하천의 하나이다.

이 하천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하여 하효동과 남원읍 하례리 경계지점인 '쇠소깍' 해안에 이르러 해안으로 유입되는 건천이다. '돈내코'와 같은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상시 흘러서 유원지로 조성돼 있다.

(3) 문섬

문섬은 서귀포항 남쪽에 바로 위치고 있는데, 해발 73m, 면적 96.833m²의 무인도이다. 이 섬의 수중에는 난류가 흘러서 아열대성 어류가 서식하고 63종의 연산호가 자라는 수중 생태계의 보고로서 제주도 잠수함 관광의 최대 목적지가 되고 있다.

문섬 안에는 담팔수나무 거목 등 난대성 상록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4) 범섬

범섬은 서귀포시 범환마을 앞에 위치한 무인도이지만 예전에는 '애기물'이라는 용천수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섬 주위에 크고 작은 해식동굴이 있으며, 돈나무, 구실잣밤나무, 해송, 박달목서 등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흑비둘기 번식지로 보호되고 있다.

(5) 섯섬

섯섬은 서귀포시 보목동 앞 바다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180여 종의 상록수림이 자라는 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난대식물의 집합장소로서 천연기념물인 파초일엽의 자생지가 되고 있다.

2)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유산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원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1972년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인류 전체

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돼 있으며, 2011년 현재 151개국 911건(문화유산 704건, 자연유산 180건, 복합유산 27건)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하회·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제주도는 2007년 국내 처음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란 명칭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 명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등재년도: 2007. 07
- 유산지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유산면적: 18,997ha(핵심지역: 9,605, 완충지역: 9,392)
- 등재사유: 탁월한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

(1) 한라산

해발 1950m의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명산으로서 신생대 제4기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산이다. 이 산은 삿갓 모양의 화산체로서 약 360여 개에 이르는 기생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수려한 경관미와 함께 구상나무숲과 다양한 극지 고산 식물들로 덮여 있다. 한라산은 고도에 따라서 식물이 특징적인 수직분포를 보인다. 즉 600~1,000m에는 졸참나무숲, 800~1,200m에는 서어나무숲, 1,200~1,400m에는 신갈나무숲, 1,400m 이상에는 구상나무숲이 분포함으로써 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한라산은 1966년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지역이 인간활동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순상화산체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 산 정상에 백록담은 깊이 108m, 둘레 1,720m의 오목한 지형으로 신선들이 하얀 사슴을 타고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백록담의 서쪽 절반은 약 3만 년 전에 분출한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 절반은 약 3천년 전에 분출한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관은 물론 지질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130여 개의 동굴 중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기생화산인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서 해안선까지 도달하면서 형성된 동굴계로서 뽕뒤굴, 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치물동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총 면적이 22,367,346㎡인 이 동굴들은 용암동굴이지만 당치물동굴과 용천동굴의 경우 고립된 석회동굴의 특징을 담고 있어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3) 성산일출봉

서귀포시 성산리에 위치한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최고 정상이 179m이고 분화구 내 최저 고도가 89m이다. 원래는 제주 본섬과 떨어져서 고립된 섬이었으나 너비 500m 정도의 모래톱이 1.5km에 걸쳐 쌓여서 제주 본섬과 연결되었다.

세계자연유산 일출봉의 면적은 1,689,338㎡가 되고 있다.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4년에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공원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25개국 77개소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는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질명소는 섬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의 상징한 1950m의 한라산, 수성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지고 있는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도의 형성 초기 수성화산 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대포동 주상절리대, 제주도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으로 100만년 전 해양환경을 알 수 있는 서귀포패류화석층, 응회구의 대표적 지형으로서 해뜨는 오름으로 알려진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

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등 9개의 대표적 명소가 있다.

(1)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입구에서 서쪽 해안가 절벽을 따라 약 1.5km에 걸쳐서 드러나 있는 곳으로 제주도 지하에 넓게 깔려 있는 서귀포층의 일부가 솟아올라 있어서 땅 위에서 서귀포층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고 있다.

제주도 일대가 얇은 바다이었던 약 180만 년 전에 지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물과 만나서 격렬히 반응하는 수성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당시 화구 주변에 화산 분출물이 쌓이면서 곳곳에 수성화산체들이 생겨나고 이 화산체들이 파도에 깎이고 해양 퇴적물과 함께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약 100m 두께의 서귀포층이 형성되었다.

그 후 계속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용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제주도 지하에 자리잡게 되었다.

(2) 대포동 주상절리대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대포동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서 약 1km에 걸쳐 형성돼 있다. 높이 30~40m의 기둥 형태의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졌는데, 5~6각의 기둥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 곳 외에도 중문 예래동 해안가, 안덕계곡, 천제연폭포, 산방산 등에서 볼 수 있다.

(3)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높이가 22m에 이른다. 폭포의 아래는 수심이 20m에 이르는 깊은 웅덩이가 있다.

이 폭포의 하부에는 하상물질과 해양퇴적물로 구성된 서귀포층이 분포하고, 그 상부에는 약 40만 년 전에 분출된 용암이 서귀포층을 덮고 있다.

(4) 산방산

산방산은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서 용머리 퇴적층과 연결돼 있는 조면암질 용암원정구(lava dome)로서 중 모양의 종상화산체이다. 조면암질 용암의 연령대

가 70~80만 년으로 추정돼 제주도의 지표층을 구성하는 화산암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곳이다.

용암돛 남측 절벽의 높이 150~300m 사이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풍화혈과 애추가 발달돼 있고, 해발 150m에는 해식동굴로서 영주10경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산방굴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산방산은 기후적 특성상 식물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보호지역으로서 산 정상에는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상록수림이 우거지고, 암벽에는 지네발란, 섬희양목 등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

(5) 용머리해안

산방산 아래에 위치한 용머리해안은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를 닮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머리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응회환이다.

용머리 응회환은 단단하지 않은 대륙붕 퇴적물 위에 만들어졌으며 분출 도중 몇 차례에 걸쳐서 화산체의 붕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화구의 위치가 변화하며 분출이 일어났으며, 응회환의 지층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운반되어온 화산물질이 쌓여 만들어졌다.

(6) 수월봉

제주도 서쪽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높이 약 77m의 작은 언덕 형태의 오름이다. 제주도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이 곳은 해안절벽을 따라서 드러난 화산쇄설암층에서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가 관찰됨으로써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약 18,000년 전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폭발하며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응회환의 하나가 되고 있다.

수월봉의 화산쇄설암층에서는 화산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판상의 화산암괴가 낙하할 때 충격으로 내려앉은 탄낭 등의 구조를 볼 수 있다.

화쇄난류가 흘러가면서 쌓인 거대한 연흔 사층리 구조는 응회환의 분출과 퇴적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그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Ⅲ. 제주 관광산업과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추이

1. 제주 관광산업

1) 관광자원

제주도의 관광자원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자원을 열거하면 영주10경, 6개의 계곡, 6개의 폭포 및 소연, 10개의 동굴, 14개의 기암, 368개의 기생화산, 1,841종의 식물, 3,315종의 동물, 12개의 해수욕장, 15개의 낚시터, 5개의 등산로, 2개의 수렵장, 2개의 보물, 1개의 사적지 등이다.

〈제주도의 관광자원〉

- 영주10경: 성산일출, 녹담만설, 굴림추색, 영구춘화, 산포조어, 고수목마, 정방하폭, 산방굴사, 사봉낙조, 영실기암
- 계곡 6개: 탐라계곡, 구구계곡, 안덕계곡, 무수천, 돈내코, 수악계곡
- 폭포 및 소연 6개: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영또폭포, 용소연포
- 동굴 10개: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소천굴, 협재굴, 쌍용굴, 와흘굴, 구린굴, 황금굴
- 기암 14개: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영실기암,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 수렵 4개: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 기생화산 368개: 다랑쉬, 용눈이, 어승생악, 송악산 등
- 식물 1,841종: 왕벚나무, 문주란, 난 등
- 동물 3,315종: 물장군, 왕은점 표범나비, 팔색조,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등
- 해수욕장 12개: 이호, 삼양, 곽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금능, 하효
- 낚시터 15개: 사라봉, 서부두, 용두암, 도두, 다려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형제섬
- 등산 5코스: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어승생악자연학습탐방로

- 수렵 2개: 대유수렵장, 도전역
- 보물 2개: 관덕정, 불탑사5층석탑
- 사적지 1개: 삼성혈

2) 관광산업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내 총생산 103,175억원 중에서 33,867억원으로 약 33%를 점유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는 관광지는 모두 151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5개소는 국가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 관광지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96개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관광지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교통, 숙박, 여행업, 각종 편의시설업 등 관광객 수용능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능력〉

- 연륙교통: 항공 국내선 13개 노선, 국제선 12개 노선, 여객선 국내 7개 항로
- 육상교통: 178개 업체, 시내외버스 13개 업체, 전세버스 60개 업체, 택시 34개 업체 및 개인택시 3,925대, 렌트카 71개
- 여행업: 787업체, 일반여행업 111개, 국외여행업 99개, 국내여행업 577개
- 숙박시설: 787개소, 25,158실, 관광숙박업 115개 12,130실, 일반숙박업 624개 12,611실, 휴양펜션 48개 417실
- 관광객이용시설업: 66개소, 전문휴양업 28개, 관광유람선업 7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29개, 관광공연장업 2개
- 유원시설업: 15개소, 일반유원시설업 12개, 기타유원시설업 3개
- 국제회의업: 26개소, 국제회의기획업 25개, 국제회의시설업 1개
- 카지노업: 8개소
- 관광객편의시설업: 116개소, 관광식당업 55개, 관광사진업 1개, 관광유흥음식점업 2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6개, 관광극장유흥업 4개, 휴양펜션업 48개

3) 관광객 및 관광수입

제주도의 관광객은 관광개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1960년 이전에는 매년 3,000명 정도로써 이들 대부분은 수학여행단과 학술조사단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6년에는 산북인 제주시와 산남인 서귀포를 연결하는 제1횡단도로의 개통으로 통행여건이 개선되면서 10만명을 돌파하였고, 1977년에는 제주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카페리의 취항에 힘을 입어서 50만명을 돌파하였다.

이어서 1983년에는 관광객 1백만명 시대가 열리고,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에는 관광객 200만명, 1991년에 300만명, 1996년 400만명, 2005년 502만명, 2009년 650만명, 2010년 750만명, 2011년 870만명이 제주도를 관광함으로써 2012년에는 약 1,0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연도별 관광객 추이

연도별	관광객수	비고
1960년 이전	3,000명 내외	수학여행단과 학술조사단
1966	10만명 돌파	제1횡단도로 개통(61-66년)
1977	50만명 돌파	제주-부산 카페리 취항
1983	100만명 돌파	
1988	200만명 돌파	
1991	300만명 돌파	
1996	400만명 돌파	
2005	502만명 돌파	
2006	531만명 돌파	2006 제주방문의 해
2007년	540만명 돌파	
2008년	580만명 돌파	
2009년	650만명 돌파	
2010년	750만명 돌파	
2011년	870만명 돌파	
2012년	1,000만명 목표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1960년도에 0.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8억원, 그 10년 후인 1980년에는 260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1986년에는 1,438억원으로 집계됨으로써 그 당시 제주도의 가장 큰 수

입원이었던 감귤수입 1,416억원을 뛰어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그 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세와 관광객이 지출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산업들이 제주 도처에 들어섬으로써 관광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90년 4,319억원, 1995년 9,814억원, 1996년 10,179억원, 2000년 14,975억원, 2001년 14,954억원, 2002년 15,265억원, 2003년 15,661억원, 2004년 16,787억원, 2005년 17,202억원, 2006년 18,468억원, 2007년 22,144억원, 2008년 23,736억원, 2009년 28,282억원, 2010년 33,867억원, 2011년에는 약 45,05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도내 총생산 및 관광수입 추이

(단위: 억원)

연도별	도내총생산/관광수입			비고
	도내총생산	관광수입	%	
1960		0.14		도민총생산(61년 26억원)
1970	240	8	3	
1980	3,753	260	7	
1986	8,922	1,438	16	관광수입감귤수입(1,416억원)추월
1990	18,836	4,310	23	
1995	41,969	8,814	23	
1996	45,318	10,179	22	1조원 돌파
2000	52,895	14,975	28	
2001	55,912	14,954	27	
2002	63,017	15,265	24	
2003	67,855	15,661	23	
2004	73,431	16,787	23	
2005	79,166	17,202	22	
2006	75,961	18,468	24	
2007	80,696	22,144	27	
2008	89,591	23,736	26	
2009	94,776	28,282	29	
2010	103,175	33,967	33	
2011		45,052		

2.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추이

1) 방문객 현황

201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방문한 탐방객은 4,400,7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별로 나눠서 보면 한라산 탐방객은 어리목 345,803명, 영실 265,408명, 성판악 393,896명, 관음사 63,339명, 돈내코 20,937명 등 1,089,38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산일출봉 탐방객은 2,455,020명, 만장굴 785,599명, 거문오름 70,760명 등이다.

특히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연간 탐방객이 2,455,020명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루 평균 6,726명이 성산일출봉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검은오름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을 휴식일로 하고 1일 입장객을 3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2011년의 경우 연간 탐방객이 70,760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이 수치는 2008년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기념으로 7~8월 중 1개월간 입장객수 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검은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입장객 20,906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3〉 세계자연유산 방문객 현황

(단위: 명, ()는 외국인)

지구별	2012년 목표인원 (A)	2011년 탐방객수	2012년 탐방객		2011년 동기대비 탐방객수 (C)	전년동기 증가율(%) (B-C)/C	목표대비 성과율(%) (B/A)
			금일	누계(B)			
계	4,790,000	4,400,762	9,521 (1,454)	629,663 (108,091)	469,169 (66,028)	34.2% (64%)	13.1%
한 라 산	소계	1,089,383 (49,763)	1,700 (149)	202,688 (5,487)	146,169 (66,028)	38.2% 976%	17.6%
	어리목	345,803 (38,136)	452 (147)	56,437 (4,969)	40,558 (967)	39.2% ((414%)	
	영실	265,408 (3,538)	321	30,464 (70)	18,611 (79)	63.7% (-11%)	

지구별	2012년 목표인원 (A)	2011년 탐방객수	2012년 탐방객		2011년 동기대비 탐방객수 (C)	전년동기 증가율(%) (B-C)/C	목표대비 성과율(%) (B/A)
			금일	누계(B)			
성관악		393,896 (7,266)	827 (2)	101,371 (392)	72,811 (1,972)	39.2% (-80%)	
관음사		63,339 (763)	77	10,614 (52)	10,047 (71)	5.6% (-27%)	
돈내코		20,937 (60)	23	3,802 (4)	4,621 (25)	-17.7% (-84%)	
소계	3,640,000	3,311,379 (857,331)	7,821 (1,305)	426,975 (102,604)	322,521 (62,914)	32.4% (63%)	11.7%
성산 일출봉	2,700,000	2,455,020 (738,103)	6,060 (1,092)	313,495 (87,502)	229,828 (51,548)	36.4% (70%)	11.6%
만장굴	870,000	785,599 (118,251)	1,761 (213)	108,281 (15,091)	90,071 (11,366)	20.2% (33%)	12.4%
거문오름	70,000	70,760 (977)		5,199 (11)	2,622	98.3%	7.4%

세계자연유산지구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탐방객 현황을 보면, 06년 2,252천명에서 2011년에는 4,401천명으로 총 탐방객수가 95.4%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경우는 2006년 228천명에서 2011년에는 907천명으로 297.8%가 증가하였다.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2006년 1,093천명에서 2011년에는 2,455천명으로 연간 200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탐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	탐방객	비고
2006	2,252	
2007	2,380	
2008	2,862	
2009	3,225	
2010	3,856	
2011	4,401	

2) 유산지구별 탐방객

일출봉의 경우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내국인 및 외국인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년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8년 16.9%, 2009년 16.5%, 2010년 21.3%, 2011년 24.6%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증가율의 경우는 2008년 1.7%, 2009년 44.9%, 2010년 44.1%, 2011년 45.9%로 나타나서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성산일출봉

(단위: 명, 천원)

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1,014,038	1,101,618	1,269,375	1,634,776	1,668,284
		무료	178,518	292,265	355,072	335,244	786,736
		계	1,192,556	1,393,833	1,624,447	1,970,020	2,455,020
	방문객수	내국인	954,348	1,151,514	1,273,201	1,463,941	1,716,917
		외국인	238,208	242,369	351,246	506,059	738,103
		계	1,192,556	1,393,833	1,624,447	1,970,020	2,455,020
	1일 최대관광객수	11,151	15,089	15,083	13,418	12,666	
	1일 최저관광객수	985	439	950	682	1,230	
	입장료 징수액	유료	1,296,965	1,239,217	1,542,348	1,802,807	2,194,122
		무료					
계		1,296,966	1,239,217	1,542,348	1,802,807	2,194,122	

만장굴 역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년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8년 34.3%, 2009년 10.9%, 2010년 19.9%, 2011년 14.4%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증가율은 2008년 520.6%, 2009년 60%, 2010년 12%, 2011년 14.4% 등이다.

〈표 6〉 만장굴

(단위: 명, 천원)

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264,528	402,454	495,597	522,175	607,801
		무료	120,017	113,929	77,257	164,521	177,798
		계	384,545	516,383	572,854	686,696	785,599
	방문객수	내국인	375,248	458,683	480,517	583,306	667,348
		외국인	9,297	57,700	92,337	108,390	118,251
		계	384,545	516,383	572,854	686,696	785,599
	1일 최대관광객수		4,413	4,540	4,539	6,088	6,423
	1일 최저관광객수		201	341	427	540	598
	입장료 징수액	유료	425,329	567,297	729,254	724,341	826,638
		무료					
계		425,329	567,297	729,254	724,331	826,638	

거문오름 역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증가내역을 보면 2009년 51.7%, 2010년 42.7%, 2011년 23.5% 등이다. 외국인 증가율은 2009년 -53%, 2010년 180.5%, 2011년 15.3% 등이다.

〈표 7〉 거문오름

(단위: 명, 천원)

관광지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출봉	방문객수	유료					
		무료		26,477	40,159	57,307	70,760
		계		26,477	40,159	57,307	70,760
	방문객수	내국인		25,804	39,857	56,460	69,783
		외국인		643	302	847	977
		계		26,447	40,159	57,307	70,760
	1일 최대관광객수			300	300	300	300
	1일 최저관광객수			25	27	33	28
	입장료 징수액	유료					
		무료					
계							

이밖에 천지연 폭포는 1,638,620명, 대포동 주상절리대는 1,456,174명, 산방산은 769,05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2010년 기준)

3. 문제점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은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내고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의 자원이 아니지만 자원의 특성상 세계자연유산은 보존적 측면,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적 측면, 지질공원은 관광적 측면이 강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같은 자원이 이 3개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보존, 복원을 모두 아우르는 보호적 측면에서의 관광자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성산일출봉의 경우 1일 최대 탐방객이 15,00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혼잡은 물론 세계유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거문오름의 경우 1일 최저 탐방객이 25명에 불과함으로써 자원의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는 측면과 함께 무료 탐방으로 인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등 자원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라산 탐방로의 경우는 5개의 탐방로가 개설돼 있으나 탐방로별 특색이 없이 같만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들 유산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IV. 관광활성화 방안

1. 주민 중심의 통합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생태관광은 1965년에 헬저가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을 고찰하여'라는 논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다음의 4가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관광이다. 즉, 최소의 환경영향, 관광대상 문화에 대한 최소 영향 및 최대 만족, 관광지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 참가 관광객에 대한 최대 만족이 그것이다.(고승익, 2008: 16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태관광이 대규모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관광지와 달리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 소규모로 경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갖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한라산 국립공원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관계로 이를 제외한 생물권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지질공원의 관리 운영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 형태의 관리체를 만들어서 경영하고 서로간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관광객 분산에 의한 혼잡도의 감소 및 자원의 보호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거문오름은 탐방객이 거의 없고 성산일출봉은 과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성산일출봉의 경우 무한정 관광객을 수용하고 거문오름의 경우는 하루 300명이라는 편협된 틀에 묶여서 탐방객 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의 경우 산을 오르는 길과 내려오는 길을 달리함으로써 혼잡도를 줄여야 하며, 거문오름의 경우는 탐방객수의 제한을 풀어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문오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루트의 조성

제주도의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의 자연유산은 관리는 물론 관광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유산을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엮는 생태관광 상품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나누어서 동부의 경우 거문오름-성읍민속마을-성산일출봉-만장굴-우도를 엮는 1일 생태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서부의 경우는 주상절리대-산방굴-수월봉-평화박물관-마라도를 엮은 1일 관광상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의 경우는 지금처럼 무작정 오르고 내리는 등산 위주의 탐방을 탈피하

여 한라산 사계의 특징과 전설 등을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생태·문화 학습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제주도에는 예부터 다양한 여신들이 전설이나 신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천지창조의 거대한 여신으로서 한라산·바람·해녀의 신인 설문대할망, 육지에서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와서 농경문화를 시작한 백주할망, 음력 2월 제주도에 들어와서 한라산을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들판에 오곡의 씨를 뿌려주고, 갯가 연변에 우무, 전각, 편포, 소라, 전복, 미역 등 해초의 씨를 뿌려주는 영등할망, 옥황상제에게서 오곡의 씨앗을 받아와서 7월 보름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아름다운 농경신 자청비, 송아지, 망아지, 오곡의 종자를 가지고 온평리 바닷가를 통해서 상륙하여 고양부 삼신인의 아내가 되었다는 ‘동해 벽랑국’의 아름다운 세 처녀 등이 그것이다.(제발연, 2012: 296-303)

이들 신들은 모두가 제주자연의 창조 또는 한라산, 들판, 바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자연경관과 불이의 콘텐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제주도의 여성신화와 아름답게 엮어내는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5. 다크투어리즘·잣성과의 연계상품 개발

제주도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오름과 들판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전초기지로 사용되면서 곳곳에 수많은 동굴과 유적을 남겨 놓았다.

이들 중에서 현재 관광지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평화박물관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은 거의가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오름에 땅굴 또는 방공포기지의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일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중산간에는 제주도 사람 고독종의 건의로 조선조 세종대왕때 만들어진 10소장의 흔적인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과 산마장의 흔적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 곳의 일부는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을 다크투어리즘, 10소장과 산마장의 잣성과 연계시킬 경우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자원을 문화자원과 묶는 연계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방패를 엮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순상화산의 지형이다. 곳곳에는 예부터 ‘오름’이라고 부르는 크기가 다양한 화산체들이 약 360여 개가 솟아 있는데, 분석구, 응회환, 응회구, 용암돔 등으로 부르는 지형을 만들고 있다.

분석구는 마그마가 가진 폭발력의 힘으로 다량의 분석과 용암, 화산재가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화산체를 일컫는데, 제주사람들은 이 붉은 돌을 ‘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름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로는 바닷가 주변에서 보이는 ‘응회환’과 ‘응회구’가 있다. 이것은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는 가운데 지하수나 지표수(바다, 호수, 하천, 빙하 등)를 만날 때 마그마는 급히 식고 물은 끓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매우 격렬하여 강력한 폭발의 기폭제가 된다. 이런 현상을 수성화산활동으로 부르는데, 제주도의 오름 중 약 10개 정도가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방산이나 한라산의 서북벽은 점성이 높은 용암이 화도 주변에서 멀리까지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높게 쌓여서 형성된 지형으로 ‘용암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상의 생성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주도는 영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바람과 파도에 침식되면서 특유의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그 위에 흙이 쌓이면서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식물들을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함으로써 세계유산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도는 1970년대 이후 적극적인 관광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2012년의 경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 1천만 관광객의 배경에는 2002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하거나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생물권보전지역, 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도 지질공원 등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관광 측면에서 크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제주관광산업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의 통합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관광객 분산에 의한 혼잡도의 감소 및 자원의 보호,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관광루트의 조성, 스토리텔링 융합 콘텐츠의 개발과 적용, 다크투어리즘·잣성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고승익 외, 「현대관광학」, 2008

박종구, “생태관광지의 계획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994

제주발전연구원, 「스토리텔링」, 20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201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3관왕 제주」, 20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매뉴얼」, 2011

한국관광공사, “차세대관광으로서의 생태관광,” 「관광정보」, 1992